제 3 편 추억 속의 건물들

Ⅰ. 천지모후 성모동굴[296]

천지모후 성모동굴은 1954년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교리가 선포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성모성년'을 맞이하여 성당 구내에 축조공사를 거쳐 1955년 12월 8일[297] '성모무염시태축일'에 라리보 주교의 집전으로 강복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6·25전쟁 때 피랍되어 순교한 공베르 신부 순교기념비도 세워져 이날 함께 강복되었다.

건립비용은 50여만 환이 소요되었는데 성모상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들은 한국군 장교가 생제 신부에게 5만 환을 기부하고, 이에 감동한 교우들이 50여만 환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건립 의지를 모은 결과로 이루어졌다.[298]

성모동굴은 당시 '천지의 모후첨례일'을 기념하기 위해 동굴 위 정면에 '천지모후' 글자를 새겨 넣었다. 현재 이 성모동굴은 1987년 6월 도서관(사제관, 수녀원) 신축

1950~1960년대 성모동굴

100주년 기념
성모동굴 그림

공사를 위해 철거되었다. 천지동굴에 설치되었던 루르드 성모상은 동굴이 철거된 후 뒤뜰에 이설되었다가 2010년 성당 내부로 옮겨졌다. 이 성모상은 당시 프랑스에서 제작하여 들여온 콘크리트 제품의 성상으로 전해지는데 2010년 성당을 대수리하면서 성당 내부로 옮겨질 때 표면의 이물질을 벗겨내고 성상 조각가의 도움으로 새롭게 표면칠을 하였다.[299]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는 공간, 약속 모임 장소, 기념사진을 찍던 장소 등 논산 부창동본당의 교우들은 천지모후 성모동굴이라는 장소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기억은 서로 다르지만 구 성당과 함께 성모동굴이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다시 복원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성당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묵주기도 100만 단 봉헌을 바치며 성모동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Ⅱ. 구 사제관

성당과 구 사제관

구 사제관은 생제 신부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2층 규모의 서양식 건물이다. 6·25전쟁 이전부터 있던 본당 사제관은 전쟁 중 터키 군인들의 실화로 불타버려 전쟁 후 신부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생제 신부는 UN군의 보상을 받아 새 사제관을 지으려 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300] 결국, 생제 신부는 보상과 상관없이 사제관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도 쉽지 않았다. 본래 1955년 부활 주간에 입주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으나 건축업자는 9월로 한 차례 완공을 미뤘고, 결국 1956년경에 가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6·25전쟁으로 불탄 사제관에 대해서는 교우들의 증언이 남아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노경(베드로)의 증언 정리:이 사제관은 1951년 화재로 소실된 사제관이다. 신원식 신부 재임 시기에 미사 복사를 섰고, 그로 인해 사제관에 자주 출입하여 어느 정도 내외부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사제관은 터키군 간부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중 화재로 전소되어 멸실되었으며, 그때 사병들은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둔하였다. 그리고 사제관이 건립된 시기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을 뿐,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 사제관의 위치는 현재 성당(1961년 건축) 앞쪽 정면의 계단이 있는 곳으로 당시는 성당 자리만큼 지대가 높았으며, 현재의 교육관(도서관) 앞에서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이 사제관 출입구가 되

며, 현재 사제관이 있던 자리는 성당 신축 후 지반을 절개하여 성당 정면의 계단과 마당 끝부분이 된다.

- 박노중(요셉)의 증언 정리:'6.25 당시 사제관은 인민군 사무실로 사용되었다(故 양일남의 구전)'. 대건학교 운동장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사제관에서는 일부 터키군 간부들이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하던 중 대낮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대건중학교 학생들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였다. 화재 이후 터키군은 철수하였다.

신축에 대한 다른 증언에 의하면 1951년 화재 사건 이후 터키군은 철수하고 논산훈련소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소실된 사제관 뒤편으로 사제관을 신축하였다. 신축된 사제관은 1987년까지 사제관, 교리실, 레지오 회합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987년 6월 도서관(사제관, 수녀원) 신축공사를 위해 철거되었다. 구 사제관이 철거되고 신축공사 중에 본당신부였던 박상래 신부는 손만재 신부가 1970년에 건축한 관사에 임시로 거주하였다.

구 사제관의 구조와 형태는 건물은 장방형 평면을 갖는 지하 1층, 지상 2층 시멘트벽돌 조적구조로, 연면적 60평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의 근대식 건물이다. 시멘트벽돌은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건물의 좌향은 북향이며 정면 출입구는 구 성당을 향하는 서쪽에 위치한다. 사제관 뒤편에는 식복사가 거주하는 별도의 집이 있고 그곳에서 주로 음식 준비를 하였다.

건물의 입면은 장방형의 시멘트벽돌조 2층으로 창문이 규칙적으로 배치되고, 돌출된 굴뚝과 홈통 배치, 박공벽 전체가 보이고 낮은 박공지붕 형태의 주출입구가 있는 전형적인 서양식 건물이다. 평면 형태는 동서 방향으로 장방형 형태가 된다. 내부 평면 배치로는 건물의 북측면을 따라 복도가 일부 배치되고 주출입구로부터 안쪽으로 회의실(보좌신부방), 계단실, 주임신부 집무실, 침실, 식당(주방)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계단실에서 지하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으며, 지하실은 별도의 환기창이 없이 밀폐된 창고이다. 지하실 위치는 계단실을 포함한 집무실 아래쪽이다. 2층은 계단실로 서쪽은 교리실(혹은 회의실), 동쪽은 대회의실(교리실)이 위치한다. 계단은 목조계단으로 1자형으로 설치되었고, 2층에서 천장 지붕틀로 오르는 계단도 설치되었다.

정면 출입구는 박공벽 서측면의 좌측 끝에 위치하며, 돌출된 낮고 작은 맞배지붕

형태로 기와를 마감한 현관이다. 현관 기둥은 시멘트벽돌 조적조이며, 전면과 좌우측면은 각각 아치를 이루고 있으며 전면 아치 상부의 박공벽 부위에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다. 현관 출입구에는 콘크리트로 된 4개의 단이 있으며 현관홀 좌우측에는 높이 70cm 내외의 난간벽을 설치하고, 상부는 아치 공간으로 비어 있다. 부출입구는 남측면 회의실과 집무실 사이에 위치하며 정면 출입구와 같은 형태로 설치되었다.

내부 바닥은 각 실과 복도는 마루구조이며, 식당 및 화장실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었다. 건물 둘레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환기구는 좌우측 벽면하부에 각각 4개소씩, 전면에 1개소, 후면에는 2개소가 된다. 내부에는 난로를 설치하여 난방을 해결하였다. 벽체내부에 연도를 만들어 연통을 연결하였다. 지붕마루에 벽돌로 조적된 굴뚝이 2개소 돌출되어 있다. 창문은 외벽체에 격자 형태의 오르내리창이 배치되어 있다. 정면에는 주출입문과 창문이 3개소(1층 1개소, 2층 2개소)가 있고, 좌우측면에는 각 층마다 4개소씩 배치되어 있다. 각 창에는 평판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지붕구조는 목재트러스를 사용하고 천장은 합판반자를 대고 방형으로 졸대로 마감하였다. 지붕마감재는 기와를 사용하였다. 처마 끝에는 수평홈통을 설치하고 건물의 모서리 4개소에 선홈통을 달았다. 현관 지붕에도 홈통을 설치하였다.

한편 구 사제관은 서양식 생활 형태를 배려한 입식 구조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신부의 생활에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았다. 한국인 신부의 좌식 생활과 온돌문화에 적합한 주거방식으로 변경을 가져왔다. 또한, 주방원의 작업 및 생활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평면상 증축과 개축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건물은 원형으로부터 여러 부위에서 큰 변형을 가져왔다. 그리고 기존 사제관의 동측에 주방원의 생활공간(거실, 침실, 화장실)과 창고를 증축하였다.

Ⅲ. 관사

관사라고 불린 이 건물은 1970년 제10대 주임인 손만재 신부 부임기에 건축된 것으로, 시멘트벽돌조 2층 형태의 건물이다. 연건평 40여 평으로 당시 임시 사제관으로 사용하였다. 건물의 위치는 현재의 성당(1961년 건축)의 좌측 뒤편이다.

관사는 대건중·고등학교 교목 신부가 거주하는 사제관으로 사용되었는데 김기룡 신부가 학교장 겸 강경본당 주임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권태웅 신부가 6개월 정도 거주하였다. 한편 서울 혜화동 소신학교 과정이 폐지되면서 대전교구 내 맹세영(세례자요한) 외 소신학생 4명이 대건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자 1981년 여름부터 1982년 말까지 이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교목 신부가 사감 역할을 하였다.[301] 그 후 1983년부터 1987년 6월까지 백양사진관을 운영했던 조용득(야고보)과 고흥자(안나) 부부가 거주하였다. 박상래 신부 재임 당시에는 도서관(사제관, 수녀원) 건축으로 사제관이 철거되면서 이 관사에서 임시로 생활하였다. 1987년 도서관(당시 교육관 겸 사제관, 수녀원)이 완공되면서 더 이상 관사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이후 대부분을 주일학교 교리실, 공소 교우들의 레지오 회의실 그리고 청년들의 공동체 회의실로 사용해왔다.

건물의 실 배치는 1, 2층에 각각 2개소의 방이 있으며, 중앙 현관을 통해 진입하고, 안쪽 현관홀을 통해 좌우측 방으로 연결된다. 중앙홀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건축 초기에는 관사의 동측에 연접해 있는 가설 건물에 주방을 설치하여 식생활을 해결하였다. 그 후 관사는 주방 설치, 급배수시설, 화장실 설치 등으로 수리가 이어졌고, 단열 및 설비의 취약으로 거주하기에는 용이하지 못했다. 이 건물은 김기 신부 재임 시기인 1999년 화장실 신축을 위해 철거되었다.

제 4 편 관할 공소 소개

Ⅰ. 백석공소[302]

백석공소는 1949년 연산 사포리공소에서 시작된다. 공소의 설립과정은 하영호(시몬)이 남긴 「백석 강당 약사」(1951~200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50년대 첫 판공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성주문(토마스), 남병희(발라바) 등이 입교하는 등 신자 수가 증가하였다. 사포리공소가 설립되면서 첫해 신자 수는 25명(남자:11명, 여자:14명)이었다. 이후 신자수가 꾸준하게 늘면서 공소집이 한계에 이르자 교우들은 강당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생제 신부의 도움으로 1955년경에 지금의 공소 자리를 구입할 수 있었고, 교우들의 노력에 힘입어 1965년 마침내 강당이 완공되었다.

분류번호	016-논산부창동-백석리		
소속본당	논산 부창동성당		
공 소 명	백석리공소	사용현황	기능유지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55번길 16-11 (백석리 436-2)		
공소설립	1949년	공소건립	1965년
대지면적	628㎡	연면적	82.64㎡
건축면적	82.64㎡	층수	1층
부속시설	다목적회관, 성모상		
구 조	조적조 / 맞배지붕		
현황	• 배치:대지는 마을길 선비로755번길과 763번길이 교차하는 남서쪽에 위치하며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동쪽의 대문안쪽으로 좌측에 다목적회관, 중앙에 마당, 우측에 공소가 각각 위치한다. • 평면구성:공소는 장방형 평면이며 제단부 후면에 부속실을 배치하고 있다. • 기초:기초는 조적조 줄기초이다. • 기둥:조적벽식구조로 별도의 기둥은 설치되지 않는다. • 벽체:시멘트 벽돌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시공하고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현황	• 창호:장방형 창호이며 상부는 고정창, 하부는 여닫이창이다. 창틀은 알루미늄제로 되어 있다. • 바닥:신자석은 마루구조이며 출입구 안쪽에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이 좌우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 지붕부:맞배지붕형식에 골함석을 마감하고, 천장은 평천장으로 합판 위에 방형으로 졸대를 대었다. • 마감:건물의 외벽은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 기타:공소 남측면에 성모상과 다목적 회관을 배치하고 있다. 다목적 회관은 경량철골조에 샌드위치판넬로 마감하였다. • 주변현황:평지에 가까운 농경지와 농촌주택이 산재해 있다.		
연혁 (수리기록)	• 1949년 사포리에 신자가 거주하였고 하영호의 모친이 부적으로 이주하여 전교가 시작되었다. • 1950년대 첫 판공이 있었고 성주문(토마스), 남병희(발라바)가 입교하는 등 신자수가 증가하였다. • 1955년 논산본당의 생제 신부 재임 시기에 공소 부지를 확보하였다. • 1965년 현재의 대지 위에 36평의 공소를 건축하였다. 벽돌은 현지에서 생산하였고 성황당의 돌무더기에서 2대 차량분의 자갈을 옮겨와 사용하기도 하였다. • 1988년 철골조의 종탑을 설치하였으나 2015년 부식이 심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하였다. • 공소 부지:백석리 436-2번지(대, 628㎡). 우측에 공소, 좌측에 다목적회관이 위치한다. • 역대 공소회장:성주문(토마스), 하영호(시몬), 최두칠, 이강훈(베르나르도), 서삼식(토마스) • 공소 건물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목적 회관을 건축하여 공동체 친교실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사항	•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둠벙』 54호, 1989.		
소유자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연락처	042-630-7731
관리자	논산 부창동성당	연락처	041-733-5321

—
공소 전경
공소 정면

—
공소 우측면
공소 좌측면

—
내부
전경(제단부)
부속실(제의실)

—
성모상
다목적회관
(회합실)

Ⅱ. 연산공소[303]

연산공소는 1954년 연산면 연산리 시장 부근에 생제 신부가 가정집을 매입하여 성사 예절 등 공소로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 2㎞ 떨어진 점촌리[304]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소가 형성되어 옹기를 구워가며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들이 있었는데, 연산리에 새로 공소가 창설되면서 이곳에도 참석하는 교우들이 생겨났다.

초대 회장에는 정덕모가 76년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생제 신부는 신자 수 200명이 되는 연산공소가 공동체 창설의 조건을 채우게 되자 약속대로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305] 그는 320평의 밭을 공소 부지로 매입하고, 신자 배가운동 등 복음의 씨를 뿌리며 헌신하다가 작고하였다. 당시 공소의 위치는 연산면 연산리 176-9번지로 대지 133평과 구 공소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소는 목조 골함석집 건물 22평이었다.

이후 2대 회장에는 그의 아들인 정진영(베드로)이 맡게 되었다. 그는 연산리와 점촌리의 공소를 지금의 자리인 청동리로 옮겨 통합시켰다. 그는 1982년에 전매청 창고를 빌려 교세확장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80여 명의 교우들은 강제로 퇴거당하게 되었다.

3대 회장인 이창영(요셉)과 공소 신자들은 강당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공소신축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연산지역에는 공소강당이 없어 신자 가정집에서 공소예절과 예비신자 교리반 외에 공동체모임을 가져왔다. 1982년에 빌렸던 전매청 창고에서 강제로 퇴거되면서 강당의 신축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소에서는 1985년 3월에 공소건축을 계획하였다. 초대 정 회장이 기증한 320평의 토지를 매각하고 현재의 부지 180여 평을 매입하였다. 공소 신자들의 헌금과 희사금으로 건축비는 17,200,000원이 소요되었다. 공소 건물은 1986년 3월에 착

공하여 같은 해 6월 22일 43여 평의 강당과 부속실을 준공하였다.

공소건축 예산서(1986년)

수입예산(단위:원(₩))		지출예산(단위:원(₩))	
현금	6,500,000	건축비(43평×400,000)	17,200,000
공소신자 희사금	5,700,000		
독지가 및 특별희사금	5,000,000		
계	17,200,000	계	17,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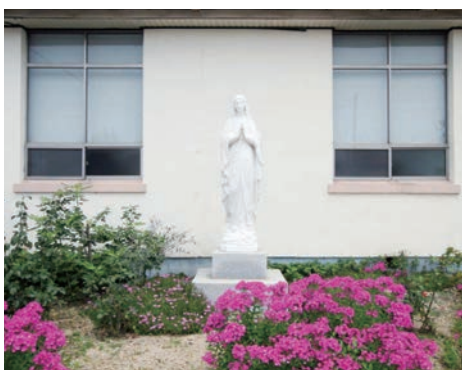
부창동성당에서 대전교구청에 발송한 1986년 3월 11일 자 공문, 연산공소 강당 신축 심의 건에 의하면 대지 180평 위에 건물 43평에 대한 건축예산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기술자를 제외한 단순 노동력은 공소 신자들의 희생봉사로 할 것과 농한기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축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분류번호	017-논산부창동-연산		
소속본당	논산 부창동성당		
공 소 명	연산공소	사용현황	기능유지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75번길 17-4(청동리 581-4)		
공소설립	1949년	공소건립	1986년(구 공소:1940년)
대지면적	595㎡	연면적	142.26㎡
건축면적	142.26㎡	층수	1층
부속시설	창고 및 화장실, 성모상		
구 조	조적조 / 맞배지붕		
현황	• 배치:공소는 ㄱ자형이며 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배치를 갖는다. 공소대지는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철제대문으로 진입한다. • 평면구성:공소는 장방형 평면이며 주출입구 좌우에 실을 배치하고 있다. 제단부 우측은 제의실이다. • 기초:기초는 조적조 줄기초이다. • 기둥:공소 건물 좌·우측 벽에 외부조적기둥이 있고, 제단부 뒷벽 중앙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 벽체:외부는 적벽돌마감이다. 내부는 시멘트벽돌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이며 수성페인트를 칠하였다.		

현황	• 창호:장방형 창호이며 상부는 고정창, 하부는 여닫이창이다. 창틀은 알루미늄 제이다. • 바닥:바닥은 인조석 물갈기 마감으로 되어있다. • 지붕부:맞배지붕형식에 골함석을 마감하였다. • 마감:건물의 내벽은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수성페인트를 마감하였다. • 기타:공소 남측면인 마당 우측에 성모상이 위치하고 있다. • 주변현황:공소 건물은 연산역 진입로 안쪽 연산소재지 내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혁 (수리기록)	• 1954년경 논산본당 생제 신부 재임 시기에 연산시장 내 가정집을 매입하여 공소를 시작하였다. 2km 떨어진 점촌공소 교우들이 연산공소에 참례하였다. • 1982년대 중반에 청동리의 전매소 창고를 임대하여 공소로 사용하다가 현 위치로 공소를 옮겼다. • 1986년 6월 22일 현 공소 준공. 3월에 착공하여 강당과 부속실을 건립하였다. 초대 정 회장이 기증한 320평의 토지를 매각하여 180평의 현 부지를 매입하였다. 건축비는 2천만 원 소요되었다. • 1992년 9월 성모상 설치(이용재, 박복순 마리아 봉헌). • 2011년 본당설정 90주년 맞이 대수리를 실시하였다(고해실, 주방, 정면벽 드라이비트설치 등). • 공소 부지:백석리 436-2번지(대, 628㎡). 우측에 공소, 좌측에 다목적회관이 위치한다. • 역대 공소회장:정 회장, 정진영(베드로), 이창녕(요셉), 소유섭(요한), 김정희(루치아) • 최근에 수리를 거쳐 잘 관리되고 있다. 현재 원로사목자 김 기(바오로) 신부가 인근에 기거하면서 정기적으로 전례를 거행하고 있다.		
관련사항	•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둠벙』 21호, 1986.		
소유자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연락처	042-630-7731
관리자	논산 부창동성당	연락처	041-733-5321

—
정문
공소 정면

—
공소 좌측면
공소 정면/
우측면

—
공소
내부1(제단부)
회합실 전경

—
주방
성모상